01 교회소식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섬김
응답의 통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중 있었던 '특별찬양' 시간과 노인복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병용 장로 소식.

02 생명의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면 불의를 행치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게 되며, 나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된다.

03 기획특집
"봉사하니 축복이 넘칩니다!"
만민봉사대 이춘우 집사로부터 봉사의 사명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쁨에 대해 듣는다.

04 간증
주께 가까이, 주께 가오니…
은사집회를 통해 상세불명의 각막궤양을 치료받은 임세진 집사와 청력이 살아나고 이명까지 치료된 인도 깰라쉬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882호 2019년 3월 3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올려 드리는 '특별찬양'

지난 3월 11일(월), 밤 9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특별찬양'이 진행되었다. 2월 18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기간 중 2회 차 첫 날, 마음을 모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하신 대로 정성껏 준비하여 참석한 성도들은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를 시작으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평생에 가는 길' 등 이어지는 곡들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의 향을 올려 드렸다.

이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하신 대로 이날 '특별찬양'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첫사랑의 회복, 치료와 응답 등 행복한 간증이 넘쳤다.

"찬양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 전정기능장애가 사라졌어요!"

지난 2월 중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시작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똑바로 세우려 해도 어지럼증으로 자꾸 옆으로 고꾸라졌지요. 구토가 동반되고 입맛도 잃어갔으며, 잠을 자다가도 어지럼증이 느껴져 양손으로 베개를 꼭 잡고 자야 했습니다.

이예옥 집사
(57세, 1대대 5교구)

3월 4일(월), 입원하여 며칠간 검사를 통해 '편두통과 전정기능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정기능장애'란 귀 제일 안쪽에 위치한 전정기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는 단시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니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약을 먹고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구토만 약간 진정될 뿐 두통과 어지럼증은 여전했지요.

✦

저는 '특별찬양' 시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로 준비하였지요.

3월 11일(월) '특별찬양'이 있는 날도 여전히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약을 끊고 일찍 성전에 갔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올려 드리니 찬양하는 내내 온몸에서 땀이 많이 흘렀지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게 자리에서 가뿐히 일어날 수 있었고, 점점 호전되어 모든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한병용 장로,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취임

지난 3월 21일 우리 교회 한병용 장로(무지개 뜨는 마을 원장)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안성 시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 및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 장로는 "모두가 소통하고 나누는 민간복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소외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그는 젊은 시절 부도를 맞아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나 1988년 우리 교회로 인도받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말씀과 구제, 기도를 통해 영육 간에 소생하게 되었다.

이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만민복지타운, 무지개 뜨는 마을 등으로 노인들을 가족과 같이 섬기며 복지에 힘쓰고 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고린도전서 13:4~6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와 달리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며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했습니다.

말년에 사도 요한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곧 진리대로 살기 위해 힘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는 그의 고백(요삼 1:3~4)에서 그 기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혈기왕성했던 그가 변화된 뒤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면 불의를 행치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나아가 복음을 뜻하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복음의 역사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러면 영적인 사랑의 15가지 항목 중 하나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진리를 갈구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 사상과 철학을 탐구하고 갖가지 종교 교리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며, 누구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알아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딤전 2:4).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내면 시기, 질투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히 이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보다 더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사람을 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부흥하고 사랑받는 교회를 볼 때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2.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 사랑, 공의 등 진리에 속한 것을 보고 들으며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작은 선행을 보고도 기뻐하고 감동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하며 늘 설교를 듣고, 성경 보기를 즐겨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지요. 설령 애매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대상 28:3). 전쟁 중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살상이었다 해도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재위 당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건축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백성과 함께 성전에 쓰일 재료들을 힘껏 준비하며 벅찬 감동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대상 29:9).

이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 질투하거나 '상대가 잘못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애통합니다.

또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변개하지 않는 마음, 진실함, 정직함 등 선의 마음을 좋아합니다. 선한 말과 행실을 기뻐하지요. 이러한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습 3:17).

그러나 자신에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 남아 있다 해도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체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부터 진리만 기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어둠과 비진리가 있을 때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화되어 비진리의 마음을 온전히 벗으면 진리만 기뻐하는 마음이 되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와 같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뭐가 뭔지 모르기에 피곤해하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함은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지요.

마침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 상급이 다름을 알기에 열심히 성결되며 충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진리와 함께 백 퍼센트 기뻐하지는 못한다 해도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4. 진리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변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천국 소망과 영적인 사랑이 가득하니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지요. 또 진리로 변화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니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되 나아가 진리에 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면 먹을 양식과 음료가 간절히 생각나듯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간절해야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는 만큼 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인생 문제의 해결 방법과 축복의 비결,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보물창고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행할 때 축복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얼굴에 기쁜 빛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진리를 보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니 "참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하여 눈물이 나고 작은 선행만 봐도 감동해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흘리는 감사의 눈물, 영혼을 위한 애통의 눈물 등 선에 속한 눈물은 장차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각 사람의 영원한 천국 집에 장식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년간의 변함없는 충성

"봉사의 기쁨으로 주일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 '만민봉사대'가 있다. 각종 교회 행사는 물론 교회 주변 교통안내 및 주차봉사, 환자를 위한 휠체어봉사, 성전 청소, 예배와 주보 봉사, 주일 점심 국수 준비 및 설거지 봉사 등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7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여 지난 2월, '2018년 우수상 시상식' 봉사대 부문에서 수상한 **이춘우 집사**(1대대 3교구)의 간증을 소개한다.

생명의 말씀에 은혜받고 권능의 기도로 딸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아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아, 이것이 참이구나. 이 말씀이라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어떻게 죄를 버리는지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

이후 아내와 함께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던 중, 제 딸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 기도를 두 번 받고 깨끗이 나았지요.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딸을 통해 권능을 체험하고 나니 저도 더욱 성령 충만해져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민봉사대에 자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교통 봉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새기며 봉사하니 기쁨과 행복이 임하고

주일이면 저는 만민봉사대 연합 총무로서, 교통 봉사를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핍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식사하시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교통 봉사가 잘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며 섬겨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만민봉사대 전 대원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당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니 서로가 너무나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

만민봉사대는 누군가 강요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전 대원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봉사를 마치고 주일 밤 귀가할 때면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최고의 행복이지요.

무엇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저희가 이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충성하며 아름다운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여 건강과 축복이 넘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수상을 받아 민망합니다. 저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대원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로 수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더 열심히 충성하며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

지난 27년 동안 가족 모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봉사로, 아내(윤영자 전도사)는 주의 종으로, 딸(이상미 자매)은 예능위원회 '크리스탈싱어즈'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지요(사진 1, 2). 특히 아내가 맡은 중국 2교구도 부흥하여 함께 우수상(교역자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터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1

2

“상세불명의 각막궤양을 치료받았습니다”

임세진 집사 (50세, 전주만민교회)

지난 1월 19일(토), 풀 베는 작업을 하다가 왼쪽 눈에 흙이 들어갔는데 눈이 가렵고 충혈 되더니 다음 날에는 통증과 함께 시리고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21일(월)에는 눈에 고름이 차서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간판의 큰 글씨조차 보이지 않았고, 눈 안에 하얗게 물집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학병원 검진 결과 의사는 곰팡이성 각막궤양인 것 같다며, 곰팡이성은 치료약도 별로 없고 낫기도 쉽지 않은 데다 잘못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23일(수) 서울로 올라가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사실 저는 2005년 5월에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단 한 번의 기도로 치료되었고 불면증까지 치료받았지요. 그러니 병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 하나님께 지킴 받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기 원하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멀리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제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회개 기도를 올릴 때마다 몸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후끈했지요.

24일(목),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하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니 찬양하는 중에도 눈물이 계속 나면서 제 얼굴 쪽으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회 시 이복님 원장님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이후 눈에 시림과 가려움,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을 때, 놀랍게도 거의 볼 수 없었던 길거리 간판의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월 25일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 때는 찬양할 때부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온몸에 시원한 느낌을 받았고 눈은 점점 좋아졌지요. 28일 병원 검사 결과, 눈에 고름이 없고 90% 이상 치료됐다 했습니다.

이후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회개와 금식 기도로 준비한 2월 은사집회 시에는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낀 뒤 왼쪽 눈이 밝아져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각막 촬영

▲ 기도받기 전: 각막궤양으로 인한 농양 형성 소견

▲ 기도받은 후: 농양이 흡수되어 염증 흔적만 남아 있는 소견

“청력이 살아나고 이명이 치료됐습니다”

2017년 2월, 친구와 싸우다가 왼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 뒤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으니 자신감도 잃었지요. 저는 오른쪽 청력마저 잃을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2018년 8월,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그곳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보고 인도 델리만민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김상휘 목사님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시리즈를 들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선악과를 두신 이유,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자세히 담겨 있었지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시원함과 희열이 넘쳤습니다. 이후 유튜브 ‘GCNTV HINDI’를 통해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 제 신앙생활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

2019년 1월 14일, ‘GCNTV HINDI’ 시청자 모임이 있어 하루 금식을 하며 사모함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강사 김상휘 목사님이 말씀 증거 후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놀랍게도 왼쪽 귀의 청력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지요.

저는 3일 금식을 한 후, ‘GCNTV HINDI’를 통해 1월 25일 금요철야예배 2부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신 후에는 소리까지 잘 들렸지요. 할렐루야!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와 ‘사랑장’ 설교를 들으며 기도로 2월 은사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미움과 혈기 등으로 가득 찼던 제 모습을 깨우치며 회개했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제가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월 22일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 때에는 기도받은 뒤 남아 있던 이명 증세까지 깨끗이 사라졌지요.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니 지금은

깰라쉬 형제 (26세, 인도 인도르 시)

15~20명이 함께 모여 ‘GCNTV HINDI’를 통해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인도의 수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352-8336